

지역 소식통

더 좋은 시민소통위 출범
정읍시, 감동시정 구현하나

정읍시가 시민과 소통하는 감동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더 좋은 시민소통위원회'는 민선 7기 시정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업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구성됐다.

더불어, 각종 정책 추진 시 시민과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소통정읍', '행복시민', '정정확력'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분과별 30명씩 총 90명의 위원을 위촉하며 본격 운영 시작을 알렸다. 위원은 90명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30명과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시민 114명중 지역, 나이, 성별을 고려해 컴퓨터 추첨으로 최종 선정된 54명 총 90명으로 구성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번기 소통행정

유진섭 시장과 정읍시청 공무원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애타는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유 시장과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30여명은 5일 감곡면 양파 농가 등을 찾아 농민과 함께 수확 상황을 둘러보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연되는 등 다른 해보다 영농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양파의 경우 적기 영농을 실시하지 않으면 썩거나 판매·보관이 어려운 작물이다 보니 공공기관에서의 일손 돕기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유 시장은 이날 농산물 판로 차질과 인력난 부족 등으로 근심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유 시장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시와 유관기관 농민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많은 농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른 더위 가축 관리 비상

정읍시, 가축 고온 스트레스 대비 냉방시설 등 점검 당부 쿨링패드·에어컨 작동여부 확인, 축종별 위생관리 필수

정읍시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에 설치된 냉방시설 등의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다. 올 하절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고온기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이 받는 고온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적절한 환기를 통해 가축 주변의 공기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개방형 축사는

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원활한 공기 흐름을 위해 주변 장애물을 미리 제거해 주며 윈치 커튼과 송풍팬의 작동 여부를 미리 살펴야 한다.

또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지붕에 열차단을 위한 페인트를 칠해 송풍팬과 같이 사용하면 온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크다.

밀폐형 축사의 경우는 입기와 배기 장치 같은 환기시스템과 쿨링패드, 에어컨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공기 유입을 방해하는 거미줄과 먼지 등을 청소해야 한다. 또한, 인개분무와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축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단, 높은 습도는 오히려 더위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어 열량지수와 온습도지수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

인개분무를 작동할 경우 축사 바닥이 젖지 않도록 조절하고, 송풍팬이나 환기팬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종과 축사형태를 고려해 사실을 미리 점검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적절한 온·습도 관리로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축사에 설치된 냉방시설 등의 사전 점검을 당부했다.



대한민국 생태환경 수도 고창군이 지난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고창 자연마당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환경선언문'을 선포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환경선언문 선포

대한민국 생태환경 수도 고창군이 지난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고창 자연마당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환경선언문'을 선포했다.

이번 선언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 군민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깨끗한 세상을 선물할 것이다"며 "고창환경선언문 선포를 계기로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의장, 5개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고창환경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 행정 추진과 군민의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 깨끗한 세상을 선물할 것이다"며 "고창환경선언문 선포를 계기로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기상 고창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의장, 5개 환경단체 대표들이 함께 고창환경선언문에 서명했다.

유진섭 정읍시장, 예산 확보 활동 분주

전북도청 방문 주요 정책·현안 사업 반영 적극 건의

정읍시가 시 주요 정책·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활동에 분주하다.

유진섭 시장은 지난 4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유 시장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를 만나 시 현안사업과 정책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전북도 예산변영과 국가사업으로 반영,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사업은 ▲동진강 국가생태하천 조성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정읍~전주) 반영 ▲철도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이다.

유 시장은 "이들 현안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지역 일자

리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내 정치권, 출향 공무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동진강 국가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국토부 소관 4개 사업을 건의, 전폭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이들 좋아했던 음주운전 피해자의 '애석한 죽음'

부안 변산면故 김성균씨 사연 장기기증·장학금기탁 '몽클'

이렇게 원통한 죽음이 있을까? 이렇게 애석한 죽음이 있을까? 불의의 사고로 고인이 된 부안군 변산면故 김성균씨의 사연이 부안군민을 울리고 있다.

부안군은 김성균씨 유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 후 사연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에서 지급된 장례비용 500

만원 전액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성균씨는 변산면에서 태어나 어부로 생활하면서 고향을 지켜왔다.

유달리 지역 산수(山水)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김성균씨는 2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 재활치료를 하던 도중 지난 4월 또다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기증을 했으며 김성균씨는 환자 4명

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성균씨 누나 김문순씨는 "고인이 평소 애용하던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 고인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장례비용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게 됐다"고 고인의 숭고한 뜻을 전했다.

김성균씨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후배를 사랑하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장례비용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해주신 유족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고인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위한 장학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유족을 위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경찰서는 최근 부안군 통합관제센터 3층 관제실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365일 주민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부안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절도범 검거 기여

부안경찰서(서장 박훈기)는 최근 부안군 통합관제센터 3층 관제실에서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조모씨와 임도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제요원 조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12시10분께 CCTV 모니터링 중 장수춘 건물 1층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던 절도범을 발견해 경찰관에게 알려 검거하도록 하고, 관제요원 임씨는 같은날 22일 오후 6시 경 주산면 백석마을 정류장에 주차해 놓은 전동기가 없어진 사건의 절도범을 발견하고, 경찰관에게 알려 검거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5백여대의 CCTV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해 범행장면을 포착한 것도 있지만 범인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출동 경찰관과 실시간 교신하는 등 관제요원 조씨와 임씨의 침착한 관찰력과 관제대응 능력이 빛을 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